



황강, 장춘 유수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건결히 짊어지고 국가 식량안전을 유력하게 보장해야

4월 27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장춘 유수시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를 틀림없이 락착하고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는 길림성의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건결히 짊어지고 농사철을 놓치지 말고 춘경생산을 추진하여 국가 식량안전을 유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춘경생산의 관건적인 시절이 또다시 다가왔다. 드넓고 광활한 평판에서는 파종기들이 실북 나들 듯 돌아치고 있었다. 먼저 팔호진 심오호춘을 찾은 황강은 밭머리에서 쪼대를 깊이 갈아엎는 밭갈이 효과를 살펴보고 이어 옥수수 파종 작업을 보면서 재배전문화작사 책임자와 깊이있게 교류했으며 최근 몇년 동안의 시장 시세, 재배 수익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성 중

부는 평원에 위치해 지세가 평탄하기에 농업의 기계화, 지능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농기계계의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원가를 한층 더 낮추고 농업생산 효율을 제고해 농촌로동력을 해방하고 농민들이 더욱 많은 정력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치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야 한다. 우리 성의 농기계 제조 산업의 튼튼한 기초에 립각하여 수요에 적응하고 기능이 강대한 농기계 제품을 더욱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 팔호진 북구촌 비닐하우스 새단지에서 황강은 비닐하우스 경제 발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료해했다. 대상의 수익이 높고 취업 건인 능력이 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황강은 매우 기뻐하면서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 정책을 잘 활용하여 본지 품종의 현지 육묘를 잘 틀어쥐고 제때에 시장 변화에 따라 재배구조를 조절하는 것

으로 주변 농민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나가기를 존집체에 희망했다. 황강은 또 라림하 지류 부근의 한 농지를 찾아 봄밀, 조숙콩 등 조숙작물들의 재배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 보았다.

조사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수는 전국 제일 량곡생산대현이고 '천하제일량곡창고'로서 반드시 국가의 량곡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첫차리에 놓고 경작지의 경계선을 엄수하고 량곡 종합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생산 안전과 공급 보장의 '압창석'(压舱石)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당지 실정에 맞게 '리수모식'(梨树模式)을 응용하여 흑토지라는 '경작지중의 참대곰'을 잘 보호하고 잘 리용해야 한다. 물과 비료의 일체화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농업의 원천 오염을 한층 더 줄이고 생태환경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

다. '량곡생산대현도 재정빈곤현'(产粮大县也是财政穷县)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농산물의 정밀가공과 식품의 정밀가공을 강화하고 특색산업을 적극 육성, 장대시켜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직속 관련 부문은 '15.5'계획에서 철도와 항운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구축하고 량곡 등 대중화물 운수능력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 '가장 두려운 것을 먼저 해야 한다'(最怕什么就先干什么)는 것을 견지하고 두개의 5년 시간 동안 전 성의 모래기반 모래제방(沙基沙堤)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며 농경지 방풍림대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 재해 방지 및 감소 능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장은해, 광령계가 조사연구에 참가하였다. /길림일보

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 정식 개관



25일, 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 개관식이 거행된 가운데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과 오대징의 후손인 상해해파서화원 원장 오원경이 개막식에 참석해 현판했다. 성당위 선전부 상무부부장 왕영과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흥경이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오원경은 현장 축사와 함께 오대징의 서화작품 <형악기유십도(衡岳纪游十图)>를 기증했다.

당일 오전 10시경,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호가복과 오원경이 공동으로 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 간판을 제막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각계 관계자들이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국토를 지켜내고 변강을 수호한 선조들의 굳건한 발자취와 애국정서를 느꼈다.

청나라 광서년간 당시 좌부도어사(左副都御史)였던 오대징은 위급한 시기에 명을 받고 두차레나 변경으로 파견되어 훈춘 부도통(副都统) 이크당야(依克唐阿) 등 애국 장수들과 함께 변방을 정돈하고 국토를 되찾으며 경계표지를 세우고 구리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두만강의 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신성한 국토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가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데 중대한 력사적 기여를 했다.

오대징을 비롯한 의인지사들의 변강 수호 공적과 영웅적 업적을 기리고 그들이 보여준 애국주의정신을 계승, 발양하기 위해 연변은 '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을 설립했다. 기념관은 '변사일간, 위급한 시기 명을 받고 처음 길림으로 파견되다', '변방강화, 군사력 정비로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다', '모민실변(募民实边), 옥토 개간으로 민심을 얻다', '수변위국, 한치 땅도 빼지않아 수복해 주권 되찾다' 등 4개 단원으로 구

성되었는바 장면 복원, 문물 전시, 멀티미디어 연출 등 다양한 전시 방법을 활용해 오대징과 이크당야 등 선조들이 령토완정을 위해 헌신하고 변경 발전을 추동한 영웅적 업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기념관은 또 교양 침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변방을 공고히 하는 선조들의 영웅적 위업을 생생히 전달하고 '생사와 영육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애국심을 구축하고 중화혼을 일층 잘 수호하며 흥변부민과 국경 안정을 위한 실천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도록 광범한 간부, 군중들을 이끌어 변경지역의 변영과 안정적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오대징국토수복기념관의 개관은 오대징과 중국 근대 변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기지로 될 것이며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력사를 명기하고 조국을 열애하며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훌륭한 담체로 될 것이다.

주당위 부서기며 훈춘시당위 서기인 성효유가 개관식을 사회했다.

길림성문화및관광청 부청장 손립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장대봉, 연변대학당위 서기 두예, 부주장 윤조취, 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업위원회 부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 등 성, 주 직속 관련 부문 및 기관 책임자 동지들과 길림대학, 연변대학, 동북사범대학, 장춘사범대학,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사평시문화유산보호중심, 1881 길림기계제조국 전시관, 길림성미술가협회, 상해해파서화원 등의 전문가, 학자들이 활동에 참가했다.

/김영화기자

연변 독서절 및 저작권 선전주간 개막

26일, 연변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주관한 연변주 및 연길시 제 19회 연변 독서절 및 저작권 선전주간 개막식이 연변 만달광장 1층에서 막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책으로 석류를 물들이고 아름다운 변경의 풍경을 읽다'를 주제로 연간 100여회의 전민열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판권지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서향연변'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열독 역량을 결집시켜 연변 민족단결 정신의 삶의 터전을 함께 구축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민열독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 현장에서는 독서보급 활동에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개인과 프로젝트를 표창했다. 진대용, 손승승, 허화자 등 20명에게 제 18회 연변독서절 '우수독서보급인' 칭호를 수여했으며 '장미서향' 전 주 녀중원원 주제열독활동, '꼬마책벌레' 시리즈 독서보급 프로젝트 등 13개 프로젝트가 제 18회 연변독서절 '우수독서보급프로젝트' 칭호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는 전민열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변독서협회에 1,5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 도서들은 전민열독 '7개 분야 진입' 등 활동을 통해 변경 향진(촌), 가두(사회구역) 및 농촌 학교에 전달된다.

최근년간 연변독서절조직위원회 성

원단위들은 단결협력하고 개척혁신하면서 '서향연변' 건설사업 성과가 풍성해졌다. 현재 전 주에는 9개의 공공도서관, 5개의 전민열독협회, 80여개의 대중열독조직, 260여개의 교정도서관, 1,200여개의 문화자원공유공사 기증봉사점, 1,800여개의 농가서재 및 지역사회 열독공간이 있다.

지난해 각종 전민열독 활동을 루계로 1,200여차 전개하고 각종 도서 3만여권, 해민전자열독카드 2만여장을 발급하였으며 열독 활동에 참여한 군중은 연인수로 50만명을 초과하였다. 작년 제 1회 동북도서거래박람회에서 연변은 각종 도서 1,480여종, 정품정기간행물 20여종,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판권 작품 80여종을 전시하여 연변 출판업의 발전 로정과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전시하였다.

활동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장터 행사도 함께 열렸다. 시민들은 집에서 읽었던 책을 '도서표류장터'로 가져와 '책으로 친구를 사귀는' 도서교환 행사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교환카드를 받아 원하는 책을 골라 가져가기도 했다. 현장에는 무형문화유산 체험 구역도 마련되어 시민들은 문화재전승인을 따라 종이공예 등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가혜기자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연길공원 진달래꽃 향기로 그윽

요즘 들어 연길공원은 진달래꽃 향기로 그윽하다. 지난 4월 초 이식한 2,000여그루의 진달래가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연길공원에서는 금후에도 계속해서 공원 안에 진달래 꽃바다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훌륭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타산이다.

/김파기자



긴추린 뉴스

농림목축어업 총생산액 327억 7,000만원

올해 1분기, 길림성 농업농촌경제는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는데 여러가지 지표가 우수하고 발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다.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전 성 농림목축어업 총생산액은 327억 7,000만원에 달해 동기 대비 4.6% 성장, 이는 전국보다 0.9% 포인트 높다.

5월 13일부터 연길 - 대련 - 서안 항공편 운행

5월 13일부터 연길조양전국제공항은 연길 - 대련 - 서안 항공편(GS7645/6)을 새롭게 운행한다. 전진항공에서 집행하는 이 항공편은 기종이 E190이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운행한다. 항공편의 구체적인 운행시간

은 서안 - 대련 13: 15-15: 25, 대련 - 연길 16: 20-18: 05, 연길 - 대련 18:45-20:25, 대련 - 서안 21:15-23:50이다.
공항문의: 0433-2237058
공항물류: 0433-2237040
/본지종합

5.1절 기간 휴간 통지

길림성우정국과의 발행 계약에 따라 본지 2025년 5월 1일(목요일), 5월 3일(토요일), 5월 6일(화요일) 신문은 휴간합니다.

/편집부